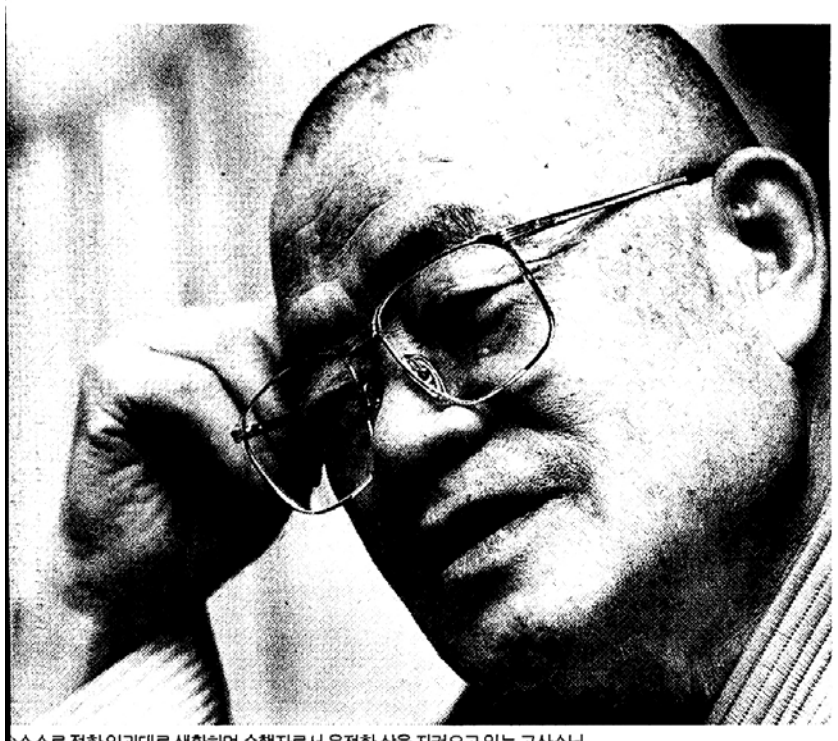


스스로 정한 일과대로 생활하며 수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지켜오고 있는 고산스님.

으로 돌아가세요

엇을 하든 성공합니다

서 뵌 큰스님

스님 (쌍계사 조실)

보살복, 받는기쁨=거지복

로 사는것이 불자들의 삶

서 하면 다 성공합니다. 처음 자기가 뜻을 발할 때 그때로 돌아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물질문명만 최상으로 올려놓고, 정신문화는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 설 테니, 우리 정신문화 계발에 힘써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 모양입니다."

스님은 큰 한 모금 드시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갔다.

"내가 오늘은 여기에 있지만 주로 부산 혜원정사에서 생활하는데, 부산 서민들의 생활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곳곳에 큰 백화점을 지어서,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같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부자만 자꾸 부자가 되고, 동네 구멍가게는 아무도 찾지를 않아서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살피고, 서민들 살아가는 것을 살펴서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데, 다들 지 감투나 챙기려 하고, 자기 자리나 보전하려해서 문제입니다. 서민들 잘 살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본분인데, 다들 자기 얼굴이나 내고, 자랑이나 하고…, 부산 만 그런게 아닙니다. 대도시는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점포도 하나 꾸려나갈 수 없어요. 오늘은 이 중소기업이 망하고, 내일은 또 어느 가게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고산 스님은 30분 넘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며 안타까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신문화가 땅에 떨어진 결과라며, 정신문화를 계발해야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셨다.

쉼 없이 말씀하시는 고산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수행으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다. 스님은 스스로 일과를 정해 놓고 생활한다.

매일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에서 108 참회를 한다. 바로 예불에 참여하고, 〈원각경〉과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송에 발원문 까지 한 후에 아침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이후에는 법회나 천도재에서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경전을 읽으며 정진하거나 때로 찾아오는 신도들과 대화도 하신다.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저녁 예불하고, 저녁 공양하고, 다시 참선 수행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이렇게 매일 같이 생활하다보면, 하루도 넉넉한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거나,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지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출가자의 삶을 살고 계신 고산 스님.

불현듯 고산 스님이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보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네가 가진 물질적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육신의 골수까지도 다 중생을 위해서 다 베풀겠다는 마음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거지의 마음을 버리고,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 전체가 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언론에 연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한 번 보세요.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는데, 서로 헐뜯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고 바보처럼 그대로 믿기나 합니까. 오히려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욕을 먹지요.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해 집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불자의 삶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수암스님



재가불자들이나 세속의 사람들은 출가스님들의 삶이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붙이 가족과 친지를 떠나 평생 홀로살기로 서원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깊은 산속 수행승의 이미지가 각인된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스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남들 생각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가는 단절과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재출발이 본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산해서 행자생활을 할 때부터 도반이 생기고, 강원과 선원 생활을 통해서 뜻을 함께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좋은 벗들을 만날 수 있다.

수암스님은 나의 행자도반이다. 입산해 아직 머리도 깎지 못하고 부엌일을 거들며 행자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였다. 해질녘에 새로운 행자가 왔다고 하여 가보니 두꺼운 안경을 쓴, 나이가 무척 많아보이는 처사 한명이 와 있었다. 그 처사가 나와 같은 날 삭발을 하고 수계도반이 된 수암스님이었다.

스님들 사이에서 행자도반은 친형제나 다름없



는 사이다. 때로는 출가의 뜻과 마음을 일생 함께 할 수 있는 까닭에 출생을 함께한 혈연보다 더 굳은 관계가 되기도 한다. 행자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가생활의 기본이 행자시절에 거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알속에서의 고통과 성숙해가는 과정을 견디면서 마침내 계를 받아 스님이 되는데 있어 속세의 과거를 뛰어넘어 출가인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행자도반이다.

나이들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같은 또래였던 수암스님은 출가전에 고교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이 인연이 되어 입산하게 된 계기가 같아 다른 도반들보다 좀더 친밀할 수 있었다. 가끔 먼저 입산한 상행자들의 부당한 태도에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할 때 은근히 다가와 같이 욕하기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했고, 며칠 늦게 입산했으면서도 절사정에 밝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치면 오히려 가르쳐주는 일이 더 많았다. 큰 스님의 49재를 만나 매주 수천명의 밥을 해대느라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공양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자기소임은 끝까지 감당해내고, 암자의 스님이 키우던 벌떼가 날아갔다고 도와달라는 부탁에 얼굴을 온통 쏘이고 와서 끙끙 앓아누워서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곤 하였다.

계를 받고 먼저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배운 교재와 자료를 가져와 설명을 해주면서 뒤늦은 도반에게 자신의 공부를 나누곤 했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산중의 대중살이와 분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방학을 맞아 본사에 오면 밤늦도록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이 들어도 도반의 몇 분간의 휴식을 위해 먼저 일어나서 도량목탁을 치거나 종송을 해주기도 하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암스님은 오신채와 멸치국물도 못 먹는 철저한 산승체질로 수년간 도시에 살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한점 불평과 불만이 없었는데, 혹 신도들이 공양대접 한다고 식당을 가도 그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만 가려 먹을 뿐 좋고 나쁜 표현이 일체 없다. 아직도 출가전에 인연맺었던 불교모임의 동기와 후배들과 소식을 끊지않고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향에 내려가면 속가도 자주 찾곤 한단다. 흔히 출가하면 속가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여 속가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래되고 묵은 옛 인연을 출가의 새로운 인연으로 엮어서 더 좋은 불연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다.

속가때 인연도 불연으로 승화

행자때 신심 간직…늘 젊은 스님

십 여년전 한 대학의 불교동아리와 맺은 지도법사의 인연도 그곳을 떠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데, 방학이면 학생들이 절에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며 스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에는 출가해 수암스님의 상좌가 된 사람도 있고, 짝을 이룬 학생들이 여럿 주례를 부탁해 도반들 중에서 최다 주례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년째 살고 있는 홍성 용봉사에는 일요일이면 인근 부대의 장병을 태워와서 법회를 베풀고, 근처의 교도소 법회를 비롯해 힘이 닿는 한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법회의 설법문안은 두꺼운 파일로 몇 개가 쌓여가고 있으며, 설사 짧은 법문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가벼이 넘기지 않는다. 때로 다니느라 피로가 심해 휴게소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스님을 찾는 인연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찾아가 보는 열성이 식지 않는다. 이젠 윗머리까지 훤해져서 겉모습은 노스님이 다 된 수암스님이 언젠가 은사스님의 출타에 시봉한다고 나섰을 때, 은사스님께서 "내가 널 시봉해야겠다." 하시는 바람에 쓰쓸하게 웃은 적이 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산골 절의 담백함을 가득 담고 사는 수암스님은 은사스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도 행자시절의 신심을 품고 사는 '늘 젊은 스님'이다.

圖 서산 부석사 주지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판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상담문의 ☎ (02)3437-8282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포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대구 팔공산 1인1지장 만불보탑 성취 4000일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장보살님의 성취공덕이 늘 함께 하길 두손모아 기원 올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대구 두산동에서 맨손으로 몸소 불단을 만들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기도수행, 포교복지 원력으로 6년 이제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에 지장보살님의 새 터전 작은도량을 마련하여 1인1지장 만불보탑 불사와 한가정 한평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지장대법사 묘허 큰스님을 모시고 만일기도 결사의 원력으로 4000일 기도를 입재발원 올립니다.
지장경 전독 제4차 1000일기도와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새원력과 새날을 기다리지 않고 성취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두눈과 두손의 무한 가피력으로 선근공덕, 성취공덕, 회향공덕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손모아 지장보살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 입 재 : 불기2546년 12월 8일(음력 11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 1일1지장 인연공덕 동참자 1인, 한가정 한평불사 인연공덕 동참자 5인가족 동참일로부터 1000일축원
㊣ 동참금 : 1인 1지장 (원불, 조상영가, 태아영가) 30만원
한가정 한평불사 100만원
인연따라, 형편따라 선원장스님과 상담후 분납됩니다.
㊣ 1인1지장에는 인연공덕 동참자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한가정 한평불사 동참자는 공덕비에 5인가족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100일마다 천도재 올립니다.

※ 대구은행 지장선우(055-05-422870-001)

불기2546년 11월 좋은날 조계종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 공 손모음
지장선원 ☎ 053)744-0150~1